



진안군 유소년 승마단, 승마대회 전 부문 입상

2025 WINTER Schooling Show 승마대회에서 출전 전 부문에서 입상 페거

진안군 용담승마클럽(대표: 이영래)이 한국유소년승마단연합회가 주최한 '2025 WINTER Schooling Show' 승마대회에서 도 입상이 이어지며 대표 유소년승마클럽으로 입지를 굳혔다.

진안군 유소년 승마단은 지난 1월 16일 1차 대회부터 3월 2일 막을 내린 3차 대회까지 장수승마장에서 진행된 대회에서 출전 전 부문에서 모두 입상하는 페거를 이뤘다.

이번 대회는 선수 110명, 미필 131두가 출전해 7개 종목(장애물 5, 마장마술 2) 각 12대문으로 진행됐으며, 미래의 주역인 유소년 승마선수부터 일반부 승마선수까지 다양한 선수들이 참여했다.

진안군 용담승마클럽에서는 선수 10명이 출전해 장애물 4개 부문, 마장마술 1개 부문에서 출전 선수 전원이 입상했으며, 장애물 70클래스(송풍초 입지야)와 90클래스(주천중 입지야) 두 개 부문에서는 대회 통합 챔피언을 거머쥐는 성과를 내는 등 전체적으로 높은 기량을 선보였다.

진안용담승마클럽은 지난 2019년도에 청간단 아래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어 승마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영래 단장은 "진안군 용담승마클럽은 승마 스포츠에 대한 강한 열정과 관심으로 대회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소년 승마대회와 진안군 승마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도통동 새마을지도자협, 취약계층 아이들에 기부

남원시 도통동(동장 소선자)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김희만)는 도통동 내 저소득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현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신학기를 맞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학생들의 새 출발에 힘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회원 일들은 평소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기탁을 꾸준히 해오며 이웃돕기의 귀감이 되고 있다.

기탁받은 현금은 1월 1기구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통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학생 5명에게 각 20만원씩 전달할 예정이다.

협의회 김희만 회장은 "지역의 인재들이 잘 자라나 남원시의 지역인재로서 멋지게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탁받은 부모는 "아이들이 새학기를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임실 오수면, 2025년 1차 지사협의체 회의 개최

오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장윤미, 민간위원장 박세근)가 지난달 26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협의체 위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사업 결과 보고 후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더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 후 2025년 사업을 결정했으며, 이와 함께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복지재원 마련 방안 등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에는 기부 및 자원봉사 문화가推向된 상황에서도 관내 식사 환경이 취약한 독거노인 및 한부모가정 등에게 매주 반찬을 전해주기 위해 관내 식당과 협약을 맺어 반찬 나눔 사업(나눔 배달사업), 모금된 기부 재원을 통하여 동절기 사랑의 김장을 나눔사업, 사랑방빵 나눔사업 등을 실시했다.

위 사업 중 호응이 좋았던 반찬나눔, 김장나눔, 빵나눔 사업은 올해에도 지속하고, 1인 가구 사회관계망 지원사업, 취약계층 나들이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을 포함 6개의 특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박세근 민간위원장은 "지역 내 복지 문제를 지역사회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대 언론인상 김종표·조창현 동문 선정

언론인 길 걸으며 알권리 충족과 지역·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

전북대학교
(총장 양오봉)
와 전북대언론
인회(회장 김
준호)가 언론
인의 사명과
정론직필을 실
천해 온 동문
언론인에게 수
여하는 2025년

김종표
2025년
전북대언론인상에 김종표 전북일보 논설위원 겸 선임
기자와 조창현 JTVA 전주방송 문화사업국장을 각각 선
정했다.

조창현
5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언론인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열고, 이같이 선정했다.

수상자인 김종표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는 39년 간 전
북일보에 재직하면서 정치와 사회·교육·편집·논설실
등을 두루 거치며 지방대학 살리기 기획을 비롯해 만
경강·동진강 탐사보도, 원도심 작은학교 활성화 등에
대한 집중 보도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왔다.

특히 새민권 수질 논란과 연계한 만경강·동
진강 탐사보도는 단행본으로도 발간돼 중요한 지역적
자료가 되고 있다.

조창현 JTVA 전주방송 문화사업국장은 1997년 JTVA에
입사한 이후 정치와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
층 보도를 해왔고, 시사기획팀장과 뉴스 앵커를 오랜
기간 맡아 지역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 방안
을 모색하는 심층적 접근을 통해 방송의 공익적 가치
를 높였다. 특히 최근엔 모교인 전북대와 함께 건지산
을 제작하는 '왕의 숲 프로젝트 디큐먼터리'로 기획
해 지역 유산의 참 가치를 널리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양오봉 총장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
직과 헌신을 실천하고 무엇보다 보고 발전을 위해 큰 관
심과 노력의 기운에 준 동문언론인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이끄는
플래그십대학으로 담당해야 나아가고 있는 모교가 글
로로 대학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
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김종표
조창현

김성섭 중기부 차관, 전북기계공고 입학식 참석… 기념식수

중소벤처기업부 김성섭 차관이 지난 4일 개교 50주년을 맞은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임인현) 입학식에 참석했다.

이에 따르면 1975년 3월 1일 개교한 전북기계공고는 지난 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메카트로닉스' 부문 금메달과 '프로토워크모델링' 부문 은메달을, 2023년 국제로봇올림피아드 대회 창작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특히 AI 특화교육 과정 운영 등 산업 수요에 발맞춘 교육으로 9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날 입학식이 끝난 후 학생들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인내와 끈기를 상징하는 광활나무로 기념식수를 했다.

김 차관은 "전북기계공고는 AI로봇 공성설계, 스마트 제조자동화 시스템 등 산업계 수요에 맞춘 특화교육을 운



영해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기술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금강피씨, 부안군에 인재육성 장학금 500만원 기부

부안군 균능인재육성재단을 방문한 (주)금강피씨(대표 서상준)는 지난 4일 부안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주)금강피씨는 군산시 서수면 소재한 업체로써 철근콘크리트 용배수로관, 콘크리트 암거블록을 만드는 콘크리트 구조물 전문업체로서 투명하고 건실한 기업경영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회사이다.

권익현 이사장은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이웃사랑 성금 지원 등 힘써온 기업이 장학금을 기부해주시면서 감사드린다"며 "기부해주신 뜻을 소중히 여겨 소외된 학생들이 한 명도 없도록 장학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부안군 균능인재육성재단은 반값등록금, 디자녀장학금, 특기장학금, 대학비전학 학생들을 위한 학원비 지원 등 실질적으로 부안지역 학생과 학부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학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 산동면 발전협, 화재 이재민에 위로금 전달

남원시 산동면 발전협의회는 지난 4일, 관내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면서 화재 피해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번에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은 10여년 전 죄송해 생활하는 중 지난 2월 7일 폭설과 강풍으로 인한 전기 화재로 주택이 전소하는 등 수천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고재운 발전협의회장은 "주민분의 고통을 분담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피해 주민은 "행정복지센터의 발전협의회 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어 너무나 위로가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이연호 교장은 "스타저축은행이 매년 이렇게 장학금을 지원해 준 덕택에 우리학교는 지역교육의 혁신을 선도하는 자율형 공립고 모델 학교로서 「지역과 함께, 세계를 품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나운채·김태영 부부,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일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나운채·김태영씨 부부가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2백만 원을 기탁했다.

무주군 적성면이 고향인 나운채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향무주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어 흐뭇한 마음"이라며 "나를 낳고 기른 무주가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의 난관 속에서도 끊임없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나운채씨는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재생용 재료 수집과 판매를 하는 사업체를 운영 중으로 2024년에도 고향사랑기부금 2백만 원을 무주군에 기탁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제6대 대전동구체육회 자전거연맹 회장으로 선출돼 활동 중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농협, '세계여성의 날' 고향사랑기부제 흥보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지난 4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NH 전북농협지역사회공헌단장 박병철 노조 위원장,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과 함께 육육걸즈 본사(대표 박예나)를 방문해 여성들에게 빵과 장미꽃을 나누며 여성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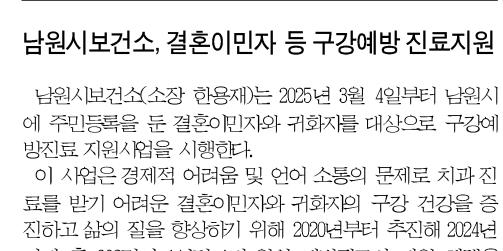
행사에서는 각 마을에서 여성 의용소방대에서는 염색을, 남성 의용소방대에서는 취약계층에 고효율 LED 등교체, 노후 전기선 점검, 고장이 난 문 경첩 수리 등으로 생활 속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맞춤형복지팀에서는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안내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주력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동참과 홍보를 위하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리플렛을 배부하며 고향사랑기부 흥보 캠페인도 벌행했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여성이 더욱 존중받고, 당당한 권리의 주체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및 권익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농협은 지속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민호 기자



남원시보건소, 결혼이민자 등 구강예방 진료지원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2025년 3월 4일부터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를 대상으로 구강예방진료를 시행한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및 언어 소통의 문제로 치과 진료를 받기 어렵거나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구강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2024년 까지 총 392명이 1인당 4만 원의 예방진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사업 신청을 남원시보건소, 보건진료소와 남원시가족센터에서 신청 받아 관내 15개 협약 치과 의원에서 구강예방진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남원시보건소 건강생활과 구강보건실(063-620-7974~6)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남원=김기우 기자



남원 주천면, 도란도란 염색방 등 진행

남원시 주천면(면장 노환순)에서는 지난 4일,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남·여 의용소방대원, 맞춤형복지팀이 협력해 '도란도란 염색방'과 '우리동네 흐지受不了'를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각 마을에서 여성 의용소방대에서는 염색을, 남성 의용소방대에서는 취약계층에 고효율 LED 등교체, 노후 전기선 점검, 고장이 난 문 경첩 수리 등으로 생활 속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맞춤형복지팀에서는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안내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주력했다.

도란도란 염색방 사업은 2020년부터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면민들에게 매우 호응이 높아 2024년에는 17개 마을 104명이, 우리동네 흐지受不了 사업을 통해서는 15개 마을 24기구가 혜택을 받았다.

/남원=김기우 기자

